



#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!

진병수/성상담, 성교육전문가

도와주세요!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...

아직 학생이고, 애를 절대 낳을 수 없는 병원에 왔어요. 근데 내 생각대로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 별로 없는데...

부모님에게 얘기하란 말은 절대 하지 마하란 말을 들 수 없어요. 이미 우리 엄마는 뱀보 님에게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!!! 도와주세요!!!

**자** 신의 현실에 대한 것, 입장 등 충분히 밝힌 것 같군요. 인공임신 — 중절수술을 받자고 의견을

말하고 싶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경제적인 여건도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란 것 때문에 소극적인 대처 밖에는 못한다는 것이죠.

현재 여자친구는 임신한 지 몇 주 인지요? 병원에서 진찰은 받아보았는지요?

병원에서 진찰 받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진찰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여자친구의 건강 등을 검진 받아야 하니까요. 그리고 정확하게 몇 주 인지도 함께.

먼저 여자친구의 입장을 들어보세요. 여자친구의 입장도 ♥♥님과 같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하세요.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.

청소년들 사이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값싸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문들이 있는

데 이것은 매우 위험하답니다.

무면허이거나 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시술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의학적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 시술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죠.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곳을 소개 받거나 찾아서 수술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.

지금의 상황에서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책임질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. 여자친구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현실을 직시하세요.

여자친구가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까지 보살펴 주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.

졸도하실 만큼 충격이 될 수도 있겠죠? 신뢰에 대한 배신감으로 믿음을 상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나 여자친구를 위한 것이라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. 그러니 도움의 손을 내미세요. 당당하게 책임지는 '남자' 가 되도록 합시다.

실추된 신뢰는 노력에 의해 충분히 회복시킬 시간이 있습니다. 초조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세요. 그것만이 책임감 있는 멋진 '청년' 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니까요. **PPFK**

